



영국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전망

채원영 연구원

영국 반려동물보험 산업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반려동물관련 의료기술의 발전, 낮은 침투도, 반려동물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등으로 시장 성장 여력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동물병원 진료비 상승세 지속에 따른 지급보험금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보험 시장 확대와 지급보험금 관리를 통한 지속 성장을 위해 기술투자 및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 영국 반려동물보험 산업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17년 영국 반려동물보험 원수보험료는 2016년 대비 13.8% 증가하였으며 계약건수는 339만 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함
 - 2017년 원수보험료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반려견 보험 76%, 반려묘 보험 18%, 기타 반려동물 보험 6%로 구성되어 있음
- 반려동물보험 원수보험료는 2022년 17억 파운드(연평균 증가율 6%)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가입건수도 연평균 2.9% 증가하여 2022년 441만 건을 기록할 전망이다

■ 이는 낮은 반려동물보험 침투도, 반려동물 의료기술 접근성 향상 때문인 것으로 보임

- 2018년 영국의 반려견은 900만 마리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하였고, 반려묘는 800만 마리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나, 반려동물보험 침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ABI에 따르면 반려견의 66%, 반려묘의 84%가 반려동물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았음²⁾
- 반려동물 관련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술 및 약제비가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그간 비용 문제로 시술 건수가 적었던 영상진단 및 수술 등의 시술건수가 증가하였음
 - 인건비 등을 포함한 동물병원 진료비는 관련 규제 부재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³⁾

1) GlobalData(2018. 6), "UK Pet Insurance: Market Dynamics and Opportunities 2018"

2) 김세중·김석영(2017. 8),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독일 15%, 미국 10%, 일본 2~3% 등으로 영국은 이들 국가에 비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GlobalData(2018. 6)는 잠재시장 규모 대비 가입률이 높지 않으며 스웨덴의 가입률 30%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영국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 대비 동물병원 진료비 상승률이 높아 반려동물보험 수요는 확대될 전망이다

■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 상승에 따른 지급보험금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음

- 2017년 지급보험금은 반려동물 의료기술 및 약제비 하락에 따른 시술건수 증가로 전년 대비 10% 늘어남
 - 건당 지급보험금은 2016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보험료 지급건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음
- 향후 지급보험금은 반려동물 진료비 상승세로 연평균 5.7%의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11억 800만 파운드 기록할 전망이다

■ 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보험 시장 확대와 지급보험금 관리를 통한 지속 성장을 위해 기술투자 및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P2P 보험 보급 및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제공 등은 고객 편의를 제고시켜 반려동물보험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평가됨
 - P2P보험 보급을 통해 기존 보험에서 적용하지 못한 특수한 위험을 담보하고, 지급보험금을 낮출 수 있음⁴⁾
 - Animal Friend's는 Pawtal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수의사와 지급보험금 산정 및 정산 절차를 직접 진행함으로써 고객이 반려동물 치료비를 전액 선불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주요 반려동물보험회사들은 동물병원 및 브리더⁵⁾와의 제휴를 통해 지급보험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영국 내 반려동물보험 점유율 2위 기업인 RSA는 수의사의 치료 관행에 개입하여 지급보험금 관리를 시도하고 있음
 - 점유율 1위 기업인 Petpaln은 우수 브리더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분양받은 반려동물에 대해 최초 4주간 무료 보험을 제공하여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파악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함
- 또한 보험회사는 반려동물보험 지급보험금 증가 역제를 위해 자기부담금 등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함
- 한편 펫웨어러블 기기 보급 확대 등은 지급보험금을 낮추고 보험료 할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전망이다
 - 2017년 영국 보험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반려동물 주인의 50% 이상이 반려동물의 건강 체크를 위한 웨어러블 기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kiri](#)

3) 2016년 Society of Practising Veterinary Surgeon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76%의 소형 동물병원이 2015년에 가격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현상에 대해 ABI(2018. 5. 28)는 최근의 동물병원 진료비 상승은 반려동물 건강보험(NHS)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4) Bought by Many는 P2P 반려동물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존 반려동물보험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특수한 위험을 담보하고 있어 기존 반려동물보험의 보완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5) 브리더(Breeder)는 과학적인 교배와 번식을 시도하는 전문 사육가임